

혼란기의 電力難타개에 큰功 세워



權 彝 憲 先生
(1907~1986)

權彝憲先生은 1907년 1월 경기도 부평에서 태어났다. 京城第1高普(現京畿高前身)를 거쳐 1932년 일본 早稻田大學 理工學部 電氣工學科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첫발을 디딘 곳이 貞洞에 있는 京城放送局이었으며, 延禧送信所가 건립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여기서 약 1년간 재직하다가 朝鮮總督府 遞信局으로 자리를 옮겨 1939년까지 6여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당시 韓國人으로는 故李載坤·黃甲性씨 등이 있었다. 日帝의 韓國인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私立學園으로 자리를 옮겨 해방될때까지 普城高普교사로 재직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해방 후 1946년 美軍政廳 電氣課長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당시 남한의 어려운 전력사정으로 인한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당시 우리나라의 發電設備 약 172만Kw중 대부분(특히 水力)이 北韓에 있었고, 南韓에는 19만8천Kw에 불과한 시설밖에 없었다. 그것도 거의 運休상태인 老朽된 火力設備가 대부분이었으므로 南韓의 부족전력의 수급을 위해 北韓으로 부터 10만Kw를 공급받고 있었다.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전력대금의 지불업무는 美·蘇共同委員會의 주관으로 南北韓側은 立會만 했다. 그런데 전력대금의 지불은 북한의 요구에 따라 電球, 電線등 전기자재와 타이어 등으로 상환하게 되었다. 그 주관부서가 商工部 工業局 電氣課였는데, 權課長이 주관과장으로서 임회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1948년 5월 14일 돌연 북한으로부터의 송전이 끊어짐으로써 남한의 發電量은 28,000Kw 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權先生의 전력주무책임자로서 활약은 너무나 컸다.

노후방치상태의 寧越火力 발전소를 電氣課 직할로 복구함과 아울러 廢鑛中이던 寧越鑛業所(磨瑤里)의 操業 및 運炭을 진두지휘 독려하는 한편, 부산·인천 등에 發展艦을 긴급 도입하는 등의 시책으로 난관을 극복했던 공노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51년에는 朝鮮電業 상무이사겸 電氣部長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電氣學會 初代 副會長, 電氣工事協會長, 電氣協會 創立委員 등을 지내기도 했다.

權先生의 업적과 공노가 인정되어 「제15회 電氣의날」에 國民勳章 牡丹章을 받았다.

權先生은 취미도 바둑·당구·골프등 다양 하였으며, 1986년 4월 81세를 일기로 타계할 때까지 굳은 신념과 正義感으로 살았다.

申 芝 修

〈元老科學技術諮問團 電氣分科諮問委員〉